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1일 화요일 음 3월 29일 (6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11℃, 낮 최고 기온은 14-18℃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1.0-2.5m로 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chanc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 phase, and moonrise/moonset times.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food safety and water quality.

월드뉴스

불량 진단키트 만든 미국 CDC 굴욕

“정제수에도 양성 반응”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량 진단키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CDC 국장.

음성 반응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불량 진단키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달이 넘는 시간이 낭비되면서 검사 지연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고도 정제수가 들어 있고 유전자물질은 없는 음성대조군 검체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엉뚱하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FDA)의 스테파니 카코모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CDC가 진단키트를 제조할 때 자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원한 진단키트와 달리 CDC 진단키트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세 가지 요소를 검사하게 돼 있는데 이 추가된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WP는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CDC가 1월말 미 전역의 공중보건 연구소 26곳에 첫 진단키트 물량을 보냈는데 이 중 24개 연구소에서

벤저민 헤인스 CDC 대변인은 “불량품 생산이 디자인이나 제조와 관련되거나 오염이 일어났을 수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잔인함 봄이다. 긴 겨울 끝 찬란한 봄꽃의 정취, 따스한 햇살 아래 누리는 여유로움, 좋은 사람과의 단란한 식사 등 으레 누릴 수 있던 일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봄이다. ‘총균쇠’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정복의 직접적 원인으로 병원균을 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고도로 발전된 현대 문명의 민낯을 드러내며 정복자로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일상의 소소함

서 일에 치였을 때 은연중에 나오던 힘들다는 불만이 철썩던 투정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하였다. 생각해 보니 나에게도 몇 가지 불편한 경험들이 있다. 비 오는 날 지인과 막걸리 한 잔 하러 들어간 주점에서의 일이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느라 동동주와 파전 하나 시켜서 두 시간 좀 넘게 있었나 보다. 계산을 할 때 주인아주머니가 통명스러운 말투로 ‘이 집은 비 오는 날 두 시간 시간제한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멍하니 지인과 황망한 눈을 마주쳤고, 그 후로 우리는 그 주점을 찾지 않는다. 얼마 전 일이다. 점심식사를 하러 근처 식당을 찾았다. 식당 문 앞에 손님 한 쌍이 대기하고 있었다. 대기 순번을 적어야 하나 싶어 내부에 들어갔더니 빈자리가 꽤 많았다. 안내문에 전화번호를 적고 밖에서 대기하면 전화한다고 쓰여 있었다. 바람 불고 꽤 쌀쌀한데, 더구나 빈자리도

많은데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근처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손님이 왕이라는 말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손님은 자신이 내는 비용에 상응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역병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변화를 수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소통 방식의 변화,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 등 간접대면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변화는 적응의 문제를 낳는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교수와 학생에게 낯선 방식의 적응을 강요한다. SNS에 익숙한 세대지만 신입생은 아직 학습자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팀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현장강사가 뛰어나다고 소문난 교수의 온라인 강의가 수준 이하로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온라인 강의로 재평가 받는 교수도 있다. 우여곡

절이 있지만 초반의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되는 중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인터넷 기반이 완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온라인 강의 등의 변화는 공영 불에 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역병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면역력은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내부 역량을 다지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현실에 안주하며 위기 대응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주어진 호황 속에서 교만과 겉멋에 물들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반추하여야 한다. 위기의 해답은 의외로 우리가 흘려버리는 일상의 소소함에 있는 법이다. 기본에 충실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가꿔나가는 마음, 그 소소함이 역병의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열린마당

협력과 연대가 승리의 길



김미숙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온 사회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잠시 편의점을 가려고 외출하거나 확진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식당자들을 상시 보호·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를 최대한 독려하고, 미설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단이탈 등 격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에너지 전환



고광수 제주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국인은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 은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현재 격리이탈자 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국적으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첫 안내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과 전담공무원 모니터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며, 재난문자 안내 및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도는 경찰·보건·전담공무원 합동으로 불시점검반을 14개반 46명으로 구성해 전담반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동참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접촉자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과 연대다.

물질을 섞어 있다. 여기서 고순도의 메탄을 최대한 많이 분리해 도시가스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총 230억원을 투입했다. 현대건설과 한국가스기술공사, EG테크가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잘게 다져 액상화된 음식물쓰레기가 소화조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진다. 현대건설 등은 폐수에 섞어 버려지는 미생물을 막으로 걸러내 소화조 내 미생물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바이오가스 생산율을 10% 올리고 메탄 순도도 도시가스 품질 기준과 동일한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최근 제주에서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일대에 하루 34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인 만큼 완벽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물론, 고효율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귀포시정 소식 (Seogwi City News) with various notices and information.

주간농업농촌소식 (Weekly Agriculture and Rural News) with notices for farmers.

감골묘목 (Gomgol Myeomok) advertisement for seedlings and landscaping services.

티엔정보기술(주) (Tie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advertisement for IT services.